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주)호반 선정

광주시, 60일내 협상... 합리적 사업계획서 제출 성공 열쇠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주)호반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지는 여태껏 빈터로 남아 있으며, 27층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담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16일 "평가심의위원회와 시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지난 14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60일 이내 협상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가지며, 공모지침에 명시된 실시설계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23년께 어등산이 시민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어등산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과제로 사업성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성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변수도 남아 있다. 돈이 되는 판매시설이 좁아 기업이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6기에 민관위원회를 꾸린 뒤 지역 상인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어등산 관광단지의 상가 시설 면적을 2만4170㎡ 이하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에 '상가 면적이 비좁아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2차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을 반대한 일부 시민단체와 소

상공인 등의 반발로 판매시설이 축소돼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273만 6000㎡)에 유원지와 체육 시설,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들이 어등산 내 판매시설이 비좁아 그동안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계획서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적절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마련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독자개발 누리호 시험발사 10월 25~31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사용될 75t 액체엔진인 시험발사체의 발사일정이 10월 25~31일(발사예정시간 오후 3~7시)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누리호 시험발사체의 기술적인 발사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검토, 발사 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를 관련국과 국제기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험발사체의 최종발사일과 발사시간은 향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이 임박해 결정되지만 준비 과정의 문제다. 10월 26~31일은 향후 기상상황 등에 따른 일정 변경을 고려한 발사예비일이다.

누리호 시험발사체는 독자 개발한 75t급 엔진의 실비행 검증 및 추진기관, 구조, 제어 등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발사할 예정이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10여분 비행한 뒤 공해상에 낙하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5t 엔진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91회의 엔진 연소 시험을 했으며, 최장 연소시간 260초, 누적 연소시간 7291.4초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국내외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발사 예정일과 발사시간대 정보를 시험발사체의 예상 낙하시간, 낙하구역 정보 등과 함께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험발사체는 우주 궤도에 진입하지 않는 발사체(Sub-Orbit)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160여초 뒤 100km 고도를 넘어 300여초째 최대 고도에 도달하며, 600여초 뒤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다.

/주각중 기자 gjuu@연합뉴스

‘비핵화 진전·‘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에 쏠린 눈

평양 남북정상회담 D-1
북미 비핵화 협상 물꼬 트고
2차 북미정상회담 마중물
2박3일 일정 전 세계 생중계

오는 18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서해 하늘길을 통해 평양을 찾아 사흘간 머물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에 성사된 세 번째 만남이자, 문 대통령의 첫 방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을 비롯해 18~20일 사흘간 이어질 두 정상 간의 주요 일정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석 달째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미 협상에 힘을 실기 위한 방편이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물꼬를 튼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된 것처럼, 이번 평양회담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남측 선발대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가운데)이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오른쪽은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연합뉴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양대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 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고 다시금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최대 미션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을 가졌는데, 미국의 구체적 보상조치 없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진

전 없이,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종전선언을 했다가는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꺼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힌 뒤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종전선언까지 내달리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인적·문화적 교류방

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도 이뤄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도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이 풀니바위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 등 구체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8일 평양비행장 주민 환영·백화원 영빈관 휴식

둘째 날 본격 회담...한 차례 이상 될 듯

미리보는 남북정상회담
산업현장 방문 가능성도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기로 한 만큼 방북 첫날인 18일 북한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주민을 동원한 성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의 환영식 이후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소는 김·노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백화원 영빈관이 유력해 보인다.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은 정상급 외빈들이 올 때 북한이 제공하는 곳으로, 화단에 100여 종의 꽃이 피어있어 '백화원' (百花園)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첫날부터 남북 정상이 회담을 열 수도 있지만,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은 둘째 날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통령 방북 때는 도착 당일 상봉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 차례 하고 이틀째에도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때 역시 남북 정상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회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정상회담이 한 차례 이상 공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장소로는 백화원 영빈관도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회의실이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모두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노동당 본부 청사를 '혁명의 수뇌부'로 부르며 어떤 외부 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 날은 김·노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처럼 북측이 마련한 환송오찬을 마치고 귀환하는 일정이 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경의선 철도연결을 비롯한 남북 간 경험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한의 산업현장 방문 등이 2박 3일간의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 측이 준비한 문화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야

※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
바로합니다. 010-6834-7400

투자자 모집

공통투자가능/월15%이상 수익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오천권매 대부.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제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다스코주

세라코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해건이나 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체 EPC계약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EPC사업 유망성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망성
 - 태양광 계통사업 유망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성,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사업개발	영업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라코	수질관리	설계영업	실제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 (전도재료)	영업	실제영업 경력자	
		R&D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210-2131, mcsu@dacso.kr, ksc@seraico.kr ~ 채용시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용지분양(입주신청) 재공고

1. 대상지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용산동 · 신정동 일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2. 분양물건

구분	분양면적(㎡)	예정단가(원/㎡)	객실수	비고	
하이랜드호텔	24,889.5	193,000	150실	원형지	
엘리시움빌라1	11,736.9	165,500	30실	원형지	
엘리시움빌라2	39,666.9	189,000	90실	일부 원형지	
리조트홀	12,082.3	224,500	120실		
스파파크(콘도)	10,272.3	224,500	150실		
스파파크(운동오락)	11,911.5	236,000		일괄신청권장	
메이플 빌리지1	여관 1	6,621.3	194,000	80실	일부 원형지
	여관 2	2,283.5	243,000	30실	
	여관 3	2,495	243,000	30실	
F&C Mall	상가 2	3,989.8	258,000		
	상가 5	1,874.9	286,000		
	상가 6	2,931.6	286,000		
전통문화의 집(상가)		8,293.8	151,500		일부 원형지

3. 입주신청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 · 외 법인 또는 개인(단독 또는 공동)
4. 입주신청안내
가. 입주신청 방법 및 기간
- 입주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입찰 (온비드 사이트 주소 : http://www.onbid.co.kr)
- 입주신청(입찰) 기간 : 2018년 9월 17일(월) ~ 9월 28일(금), 16:00
나. 문의 · 안내
- 분양문의 : Tel)033-738-3547(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팀)
- 내장산리조트 현장 문의 : Tel)063-237-4765, Fax)063-237-4766(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 온비드 이용 문의 : Tel)1588-5321(온비드 콜센터)
5. 입주자 선정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 낙찰
6. 입주자 혜택 : 전라북도 및 정읍시 조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혜택 가능

※ 세부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공고 · 공모란 및 온비드 사이트(http://www.onbid.co.kr)에 게시된 공고문, 입주신청유지서, 입주자준수사항, 토지이용계획도 등(별첨자료 포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018. 9. 10
 한국관광공사 사장